

# 다이렉트 승격 향해... 광주 FC '부산 대첩' 노린다

오늘밤 부산과 대결  
승리엔 승점 11점 앞서  
새 해결사 하칭요에 기대



광주FC가 승격 9부 능선을 넘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 광주는 23일 오후 8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2019 K리그2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번 부산전은 사실상 K리그2 우승 결정전이다. 1위 광주는 현재 16승 10무 2패(승점 58)로 2위 부산(13승 11무 4패·승점 50)에 8점 앞서 있다. 광주가 승자가 된다면 승점 11점 차로 승격이라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후 부산이 남은 7경기에서 전승을 달리더라도 광주가 승점 11점을 확보하면 다득점에 상관없이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 7연승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광주가 우승을 위해 확보해야 할 승점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광주의 분위기는 뜨겁다. 득점 1위 펠리페(16골)의 부재에도 팀은 연승을 달리고 있다. 펠리페가 이번 부산전까지 3경기 출장 징계를 받았지만, 광주는 앞선 두 경기에서 '신흥해 결사' 하칭요를 앞세워 연달아 승리를 거뒀다.

또 휴식기 동안 새롭게 준비한 스리백이 기존 전술과 잘 어우러지면서 '신의 한 수'가 됐다. 광주는 지난 1일 안산 원정에서 시즌 두 번째 패를 기록한 뒤 휴식기 동안 전술 변화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아슬마토프, 이한도, 홍준호, 최준혁 등을 활용한 스리백 카드를 선보였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드필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광주만의 새로운 플레이를 보여줬다. 공·수비에서도 전술을 수시로 바꾸는 변칙 운영을 통해 아산, 부천을 잇달아 꺾었다.

패배의 충격을 딛고 승리 행진을 재개하면서 광주는 기본 좋게 4라운드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원정에서도 역시 하칭요에 눈길이 쏠린다. 하칭요는 최근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데뷔골 포함 연속 골을 기록하며 28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광주FC가 23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2019 K리그2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앞선 25라운드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2분 이요범(가운데)의 동점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여름(왼쪽)과 두현석.

이번 원정에서도 역시 하칭요에 눈길이 쏠린다. 하칭요는 최근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데뷔골 포함 연속 골을 기록하며 28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부산은 최하위 대전과의 지난 라운드 대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고, 8실점을 하며 수비 불안이 노출됐다. 하지만 부산의 안방에서 치러지는 경기, 상대의 최강 공격진을 무시할 수 없다.

부산은 노보트리(12골)-이정협(11골)-호물로(10골)라는 리그 최고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매치를 앞둔 광주 박진섭 감독은 "이번 부산전이 사실상 결승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광

주는 그동안 모든 경기가 결승전이었다"며 "우리의 플레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가 부산을 잡고 승격 전쟁의 추를 기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잠실만 가면 '종이호랑이'

두산전 1승 7패·LG전 3승 5패...올 잠실 전적 4승 12패



KIA타이거즈가 잠실 관중 앞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KIA는 지난 21일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즌 16차전을 끝으로 올 시즌 잠실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KIA는 잠실 원정 관중석을 가득 채우며 인기를 과시했다. 화끈한 팬들의 응원을 받는 KIA 선수들도 "마치 홈구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다"며 잠실 원정을 반겼다.

하지만 올 시즌 KIA는 잠실 졸전으로 원정 경기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팬들을 실망하게 했다.

KIA는 지난 20-21일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2연전에서 이민우와 박진태의 선발 테스트를 진행했

고, 결과는 각각 2-6과 3-5패였다. 20일 경기에서 이민우는 3회 5실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KIA의 고인어였던 실책도 2개가 기록됐다. 공격도 산발 7안타의 답답한 흐름으로 전개됐다.

21일에도 최근 패배 패턴처럼 초반 실점이 있었다. 상무에서 전역한 박진태가 1회 선제점을 내렸고, 1-1이 된 2회말 다시 2점을 내줬다. 공격은 짧게 끝나면서 팬들의 아쉬움은 컸다. KIA는 앞선 주말에도 잠실에서 두산, LG트윈스와 3연전을 치렀다. 결과는 역시 3전 전패. 마지막 원정길에서도 연패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KIA의 잠실 전적은 4승 12패로 끝났다. 잠실 8연 패이기도 하다.

LG 원정에서는 3승 5패의 성적표를 작성했고, 두산에는 1승 7패로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다. 두산 원정전 유일한 승리는 지난 5월 9일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1점 차 패배를 당했던 KIA는 5월 9일 마지막 경기에서 9회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3-3으로 맞선 9회말 1사에서 이명기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선민의 좌중간 2루타가 나오면서 4-3이 됐다. 안치홍의 중전안타까지 이어지면서 5-3.

마무리 문경찬이 마지막 9회말을 실점 없이 막아 주면서 KIA의 승리가 기록됐다.

이게 올 시즌 KIA의 두산 원정 마지막 승리였다. KIA 수도권 팬들은 '예매 전쟁'을 하면서 잠실 원정경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열정적인 팬들과 달리 그라운드 위 KIA는 무기력한 패배만 남기면서 점점 관중석에도 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KIA가 잠실 8연패와 함께 씁쓸하게 2019시즌 잠실 원정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빛바랜 손흥민 '시즌 1호 도움'

EPL 레스터전 1-2 역전패...오리에 골 VAR 오프사이드 판정 논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전에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멀티골에 이어 리그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키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19-2020 프리미어리그 리그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29분 터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로 무릎 꿇었다. 후반 24분 오른쪽 풀백 히카르두 페레이라와 후반 40분 제임스 메디슨에게 역전골을 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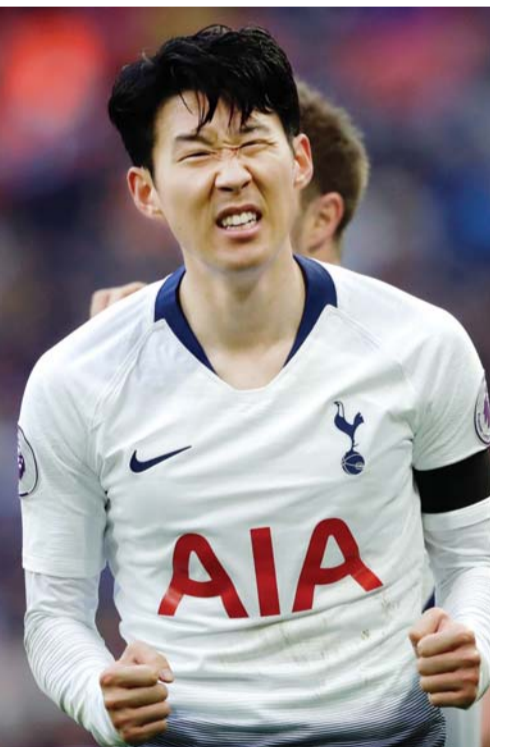
이날 토트넘은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합작 선제골로 기본 좋게 출발했다.

손흥민은 중원에서 에릭 라멜라 찰려준 패스를 받아 레스터 시티 골문으로 돌파하다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해리 케인에게 백힐로 불을 내줬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해리 케인은 상대 수비에 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지만 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케인은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오른발 슈트를 날리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순간의 번뜩임으로 환상적인 골을 성공시킨 스트라이커 케인의 집념이 돋보인 골이었다. 케인의 골로 손흥민은 리그 첫 도움과 함께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토트넘은 후반 19분 세르쥬 오리에가 레스터 시티의 골망을 흔들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리에의 골은 VAR 확인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득점이 취소됐다. 오리에가 슈트를 날리기 전 손흥민과 조니 에반스(레스터 시티)가 동일선상에 있었지만 심판은 손흥민이 에반스 보다 앞섰다고 판정, 골은 무효가 됐다.

VAR 판정은 영국과 한국에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은 공이 떠난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온사이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VAR 판정 이후 토트넘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반 24분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된 땅볼 크로스를 받은 히카르두 페레이라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34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가다리던 역전골은 레스터 시티에서 터졌다. 후반 40분 페널티 지역 바깥 중앙에서 공을 잡은 제임스 메디슨이 과감하게 중거리 슈트를 날렸고 이는 골로 연결됐다.

지난 시즌 후반부터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대체자로 제임스 메디슨을 눈독 들었던 토트넘 입장에서서는 뼈아픈 실점이었다.

한편 이날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도움 1개를 기록한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부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역전의 명수' 박성현-소렌스탐

설해원 레전드 매치 18번 홀서 뒤집어...골프 여제들 샷대결 구름 관중

박성현(26)-안니카 소렌스탐(49·스웨덴) 조가 설해원 레전드 매치에서 우승했다.

박성현-소렌스탐 조는 21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의 셀빈·시부 코스(파72·681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포섬 경기에서 최종합계 2오버파 74타를 기록했다.

이 대회는 박세리(42) 도쿄올림픽 골프 감독, 줄리 잉크스터(59·미국), 로레나 오초아(38·멕시코), 소렌스탐 등 한때 세계 여자골프를 평정한 선수들과 박성현, 렉시 톰프슨(24·미국), 에리아 쥘타누간(24·태국), 이민지(23·호주) 등 현역 톱 랭커들이 '2인 1조'를 이뤄 실력을 겨뤘다.

팀 구성은 대회 개막에 앞서 진행된 팬 투표에 따라 박세리-톰프슨, 소렌스탐-박성현, 잉크스터-이민지, 오초아-쥘타누간으로 구성됐고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 채택됐다.

이날 경기에서 박성현-소렌스탐 조는 마지막 2개 홀을 남겼을 때만 해도 오초아-쥘타누간 조에 1타 뒤진 2위였다. 그러나 17번 홀(파4)에서 쥘타누간의 두 번째 샷이 벙커 앞쪽에 박히면서 오초아-쥘타누간 조가 1타를 잃어 박성현-소렌스탐 조와 공동 선두가 됐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이 두 조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18번 홀 쥘타누간의 티샷이 왼쪽 깊은 러프에 박혔고, 오초아가 친 두 번째 샷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다시 쥘타누간의 세 번째 샷이 벙커로 향하고, 오초아의 다음 샷마저 그린을 넘긴 끝에 오초아-쥘타누간 조는 2개 홀 연속 보기를 적어냈다.

반면 박성현-소렌스탐 조는 무난하게 파를 지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박성현은



박성현 소렌스탐

우승으로 자신의 생일을 자축했다.

22일에는 총상금 1억원이 매 홀 일정액씩 걸려 있는 스킨스 게임이 현역 선수들이 치렀다. 스킨스 게임 상금은 해당 선수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성금에 쓰인다. 21일 판매한 갤러리 티켓 2000장이 모두 팔리는 등 이날 대회장에는 다소 흐린 날씨에도 많은 갤러리가 입장에 전·현직 톱 랭커들의 샷 실력을 감상했다. /연합뉴스